

“都心서 車로 女人 납치” 行人이 申告

도난車 아니다 “추적”외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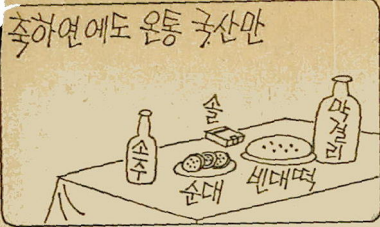
警察 뒤늦게 人身매매조직 범행여부 수사

23일 저녁 6시반경 서울鍾 警구公平동 한미빌딩앞 주차장에서 짧은 머리에 마스크를 쓴 2명이 20대 여자 승용차로 납치하는 장면을 목격,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납치승용차가 도난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20여분 후 각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.

서울3고5803호 회색트럭 2대, 승용차 1대에 태운 뒤 安國洞 쪽으로 사라졌다. 이 때 납치된 여자는 “이사람들은 경찰이 아니다.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으나 행인들은 구경만 했을뿐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.”

승용차는 현장 부근에 파출소가 없어 행선지인 서울대교明洞으로 가 명동파출소에 이 사실을 신고, 명동파출소 측은 다시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종로경찰서는 조희철과 납치차량이 도난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. 24일 오전 뒤늦게 인사매매조직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고 수사에 착수했다.

장은 “신고를 명동파출소에 해왔고 납치사건 자체가 체권채무관계나 치정관계일 가능성이 커 추종수사가 소홀했다”고 해명했다.



장어로 만든 천연칼슘

민수정

태평양화학

광州 밤늦게시위

【光州 洪健淳기자】전남대생과 시민들 1천여명은 23일 오후 4시경부터 忠壯路 光州공원 鷄林洞 등 光州 시내 곳곳에서 「선거무효」를 주장하며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였다.

경찰은 이날 시위현장에서 전남대생 宋희주군(20·산업교육과 1년) 등 15명을 연행했다.

전남대생들 5백여명은 오후 4시경 忠壯路 2가 光州우체국 앞에서 「선거무효」 魔泰

중로경찰서 成春鳳 형사계